

간호대학생들의 출산의지와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이인숙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the Intention of Childbirth and Family Strengths on Marriage Value of Nursing Students

Inn-Sook Lee
Department of Nursing, Ga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출산의지와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일 전문대학의 간호대학생 190명이었고, URL설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는 성별($t=3.890$, $p<.001$), 종교 유무($t=2.546$, $p=.012$), 경제수준($F=5.215$, $p=.006$), 출생순위($F=2.854$, $p=.039$), 결혼의향($F=44.259$, $p<.001$)에 따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성별($t=2.572$, $p=.011$), 종교 유무($t=2.122$, $p=.035$), 경제수준($F=14.563$, $p<.001$), 부모의 결혼상태($t=2.737$, $p=.007$), 결혼의향($F=5.815$, $p=.004$)에 따라, 결혼관은 성별($t=4.212$, $p<.001$), 종교 유무($t=2.443$, $p=.015$), 경제수준($F=3.708$, $p=.026$), 결혼의향($F=55.99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출산의지와 가족건강성($r=.312$, $p<.001$), 출산의지와 결혼관($r=.567$, $p<.001$), 가족건강성과 결혼관($r=.313$, $p<.001$)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beta=-.33$, $p<.001$), '결혼하고 싶다'는 의향($\beta=.49$, $p<.001$), 출산의지($\beta=.27$, $p<.001$)로 결혼관을 43.6%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결혼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출산의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intention of childbirth and family strengths on the marriage values of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A total of 190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for the study was collected from April 26, 2021, to April 30, 2021, via a questionnaire. Analyse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intention to bear children depending on gender, religion, economic standards, birth order, and marriage plan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mily strengths depending on gender, religion, economic standards, parent's state, and marriage pl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marriage value depending on gender, religion, economic standards, and marriage plan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intention to bear children and family strengths, intention to bear children and marriage value, and family strengths and marriage value. Furthermore, in terms of the variables affecting marriage value, 43.6% of the variation in marriage value was explained by the marriage plans and intention of childbirth. Based on these results, universities need to develop and manage education programs that are effective in conveying the true meaning of marriage and promoting the intention to bear children in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s, Childbirth, Family, Strengths, Marriage

*Corresponding Author : Inn-Sook Lee(Gangdong Univ.)

email: ilee001@gangdong.ac.kr

Received January 10, 2022

Revised February 7, 2022

Accepted March 4, 2022

Published March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1] 만혼화, 이혼율, 재혼율, 독신자와 한 부모 가정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도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여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 되었다[2]. 가족은 자녀가 처음 만나는 사회로서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화목하고 안정된 가정 내 분위기는 자녀의 결혼관과 가족가치관 형성에 바탕이 된다[3].

현재의 젊은 세대는 과거의 기성 세대와는 달리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결혼관을 갖고 있다[4]. 결혼관이란 동일 세대에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와 신념을 의미하는데[5] 이와 같이 젊은 세대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결혼시기를 늦추는 이유는 근대화 과정에서 성인의 통과의례로 여겨졌던 결혼이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6]. 결혼관은 결혼 여부, 결혼 과정에서의 배우자 선택, 결혼 후의 가정 설계 등과 관련된 가족가치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며[7,8], 특히 출산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 가정의 사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9]. 즉, 결혼관의 변화는 가족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10].

대학시기에 형성되는 결혼관은 향후 배우자와의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1,12].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은 저출산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13] 반면 자녀의 필요성을 인지하거나 이상적인 자녀 수를 많이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결혼을 기피하는 태도가 낮고 결혼의지가 높은 성향을 나타낸다[14,15].

비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 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가족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다.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13,16] 가족 간에 정서적 유대감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가족관계를 기능적으로 실행하여 가족구성원이 행복을 느끼고, 가족체계가 생애주기에 맞게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7]. 우리나라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의사소통, 화목, 사랑, 경제적 안정, 원만

한 가족관계, 우애와 부모공경, 원만한 친척관계 등이 있다[13]. 가족건강성은 개인이 지닌 출산의지나 결혼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청년기 자녀에게 가정의 분위기는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족지향성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된다[15,18]. 대학생은 이성교제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결혼에 대해 주관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19]. 따라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형성하게 될 대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가족을 얼마나 건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15].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이나 지역사회 간호현장에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자, 상담자, 의뢰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공보건 기관 및 산업장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여성의 혼전 생식건강, 출산 및 육아, 가족간호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므로 이들이 지닌 출산의지와 가족건강성 및 결혼관은 가임기 여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출산의지, 가족건강성 및 결혼관을 파악하고 이들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결혼관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출산의지와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일 전문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URL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연구자가 학년별 대표들에게 설문조사에 관한 안내문과 설문 링크를 카톡으로 전달하였으며 학년별 대표들에 의해 반별 단톡방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power program 3.1.9.2를 사용하였으며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일 때 최소 표본 수가 184명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09부였으며 내용이 불성실하여 분석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19부를 제외한 19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URL 설문지 첫 페이지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연구 동의에 관한 문구를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익명으로 처리되며 설문조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2.4 연구도구

2.4.1 출산의지

출산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정은선[20]이 여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개발하고 박지교[21]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측면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지교[21]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81~.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로 나타났다.

2.4.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영주[22]가 개발하고 유영주 등[17]이 수정·재구성한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 II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가족탄력성, 상호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총 22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영주 등[17]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6으로 나타났다.

2.4.3 결혼관

결혼관을 측정하기 위해 정윤경 등[23]이 개발하고 장예슬[1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정신적 풍요와 동반자, 바람직한 결합, 경제적 안정과 종족보존, 고통과 구속 등 4개의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장예슬[13]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3으로 나타났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출산의지, 가족건강성, 결혼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 가족건강성, 결혼관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출산의지, 가족건강성, 결혼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출산의지와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22명(11.6%), 여학생 168명(88.4%)이었고, 학년은 1학년 63명(33.2%), 2학년 39명(20.5%), 3학년 47명(24.7%), 4학년 41명(21.6%)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64명(33.7%), 없는 경우는 126명(66.3%)이었고, 경제수준은 상 29명(15.3%), 중 128명(67.4%), 하 33명(17.3%)이었다. 출생순위는 맏이인 경우가 84명(44.2%), 중간 18명(9.5%), 막내 74명(38.9%), 독자 또는 독녀 14명(7.4%)이었다. 부모님의 생존여부에 있어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가 176명(92.6%), 한 분만 계신 경우가 14명(7.4%)이었다.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148명(77.9%), 별거, 이혼, 사별로 인해 혼자 계신 경우가 42명(22.1%)이었다. 이성교제 경험에 있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148명(77.9%), 없는 경우가 42명(22.1%)이었으며, 결혼의향에 있어 결혼을 원한다 100명(52.6%), 그저그렇다 43명(22.6%),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47명(24.8%)이었다.

3.2 대상자의 가족건강성, 출산의지, 결혼관

대상자의 가족건강성은 3.67 ± 0.78 점(5점 만점)이었고, 출산의지는 2.27 ± 0.72 점(5점 만점)이었으며 결혼관은 2.99 ± 0.38 점(5점 만점)이었다[Table 1].

Table 1. Mean Score of Variables

Variable	Range	Mean ± SD
Family Strengths	1~5	3.67±0.78
Intention of Childbirth	1~5	2.27±0.72
Marriage Value	1~5	2.99±0.3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 가족건강성, 결혼관의 차이

대상자의 출산의지는 성별($t=3.890, p<.001$), 종교 유무($t=2.546, p=.012$), 경제수준($F=5.215, p=.006$), 출생순위($F=2.854, p=.039$), 결혼의향($F=44.25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출산의지는 남학생이 2.81 ± 0.53 점으로 여학생의 2.20 ± 0.71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종교 유무에 따른 출산의지는 종교가 있는 집단이 2.45 ± 0.74 점으로 종교가 없는 집단의

2.17 ± 0.70 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상태에 따른 출산의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경제수준이 '중'인 집단이 2.36 ± 0.67 점으로 '하'인 집단의 1.91 ± 0.68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의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결혼의향에 따른 출산의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결혼하고 싶다', '그저 그렇다' 라고 응답한 집단이 각각 2.60 ± 0.62 점, 2.21 ± 0.59 점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응답한 집단의 1.61 ± 0.56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가족건강성은 성별($t=2.572, p=.011$), 종교 유무($t=2.122, p=.035$), 경제수준($F=14.563, p<.001$), 부모의 결혼상태($t=2.737, p=.007$), 결혼의향($F=5.815,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남학생이 4.05 ± 0.70 점으로 여학

Table 2. Difference of Family Strengths, Intention of Childbirth, and Marriage Val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190)

Variable	Categories	n(%)	Intention of Childbirth		Family Strengths		Marriage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22(11.6)	2.81±0.53	3.890(<.001)	4.05±0.70	2.572(.011)	3.31±0.28	4.212(<.001)
	Female	168(88.4)	2.20±0.71		3.61±0.77		2.96±0.37	
Grade	1	63(33.2)	2.17±0.69	0.998(.395)	3.79±0.70	1.366(.254)	2.91±0.40	2.497(.061)
	2	39(20.5)	2.41±0.70		3.49±0.95		2.97±0.32	
	3	47(24.7)	2.32±0.77		3.68±0.66		3.07±0.37	
	4	41(21.6)	2.23±0.73		3.58±0.82		3.08±0.39	
Religion	Yes	64(33.7)	2.45±0.74	2.546(.012)	3.82±0.86	2.122(.035)	3.09±0.39	2.443(.015)
	No	126(66.3)	2.17±0.70		3.57±0.72		2.95±0.37	
Economic Standard	Upper ^a	29(15.3)	2.28±0.88	5.215(.006) b)c	3.98±0.75	14.563(<.001) a,b)c	3.08±0.46	3.708(.026) a)c
	Middle ^b	128(67.4)	2.36±0.67		3.74±0.67		3.02±0.37	
	Lower ^c	33(17.3)	1.91±0.68		3.07±0.89		2.84±0.33	
Birth Order	First	84(44.2)	2.22±0.69	2.854(.039)	3.63±0.78	1.651(.179)	2.97±0.41	1.395(.246)
	Middle	18(9.5)	2.12±0.64		3.74±0.85		2.89±0.39	
	Youngest	74(38.9)	2.43±0.75		3.74±0.72		3.06±0.35	
	Only Son or Daughter	14(7.4)	1.90±0.73		3.25±0.91		3.00±0.34	
Living Parents	Parents Survival	176(92.6)	2.28±0.72	1.022(.308)	3.68±0.77	1.177(.241)	3.00±0.38	0.873(.384)
	Father or Mother Survival	14(7.4)	2.08±0.76		3.42±0.86		2.91±0.40	
Parents State	Married	148(77.9)	2.28±0.68	0.563(.574)	3.74±0.75	2.737(.007)	3.01±0.38	0.777(.438)
	Separation, Divorce	42(22.1)	2.21±0.86		3.37±0.80		2.96±0.38	
	Separation by Death							
Dating Experience	Yes	148(77.9)	2.27±0.75	0.232(.817)	3.71±0.78	1.665(.097)	3.02±0.39	1.829(.069)
	No	42(22.1)	2.24±0.63		3.48±0.76		2.90±0.34	
Marriage Intention	Don't want to marry ^c	47(24.8)	1.61±0.56	44.259(<.001) a)b)c	3.34±0.95	5.815(.004) a)c	3.17±0.30	55.995(<.001) a)b)c
	Be so-so ^b	43(22.6)	2.21±0.59		3.67±0.60		3.03±0.26	
	Want to marry ^a	100(52.6)	2.60±0.62		3.80±0.71		2.60±0.35	

Scheffe test: a,b,c

생의 3.61±0.7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4]에서는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교 유무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종교가 있는 집단이 3.82±0.86점으로 종교가 없는 집단의 3.57±0.72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경제수준이 '상'과 '중'인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각각 3.98±0.75점, 3.74±0.67점으로 '하'인 집단의 3.07±0.8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부모가 함께 사는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3.74±0.75점으로 별거, 이혼, 사별한 집단의 3.37±0.8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의향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3.80±0.71점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3.34±0.9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결혼관은 성별($t=4.212, p<.001$), 종교 유무($t=2.443, p=.015$), 경제수준($F=3.708, p=.026$), 결혼의향($F=55.99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결혼관은 남학생이 3.31±0.28점으로 여학생의 2.96±0.3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종교 유무에 따른 결혼관은 종교가 있는 집단이 3.09±0.39점으로 종교가 없는 집단의 2.95±0.3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수준에 따른 결혼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3.08±0.46점으로 '하'인 집단의 2.84±0.3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의향에 따른 결혼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3.17±0.30점으로 '그저그렇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3.03±0.26점, 2.60±0.3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4 대상자의 출산의지, 가족건강성, 결혼관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	Family Strengths	Intention of Childbirth	Marriage Value
Family Strengths	1		
Intention of Childbirth	$r=.312(p<.001)$	1	
Marriage Value	$r=.313(p<.001)$	$r=.567(p<.001)$	1

대상자의 가족건강성과 출산의지($r=.312, p<.001$), 가족건강성과 결혼관($r=.313, p<.001$), 출산의지와 결혼관($r=.567, p<.001$)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3.5 대상자의 출산의지와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결혼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 종교 유무, 경제수준, 결혼의향을 가변수로 변환하고 출산의지와 가족건강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 검정 결과 2.027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차한계는 .456에서 .951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52에서 2.193으로 모두 기준치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의 가설을 만족하였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8.321, p<.001$). 대상자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향($\beta =-.33, p<.001$), 결혼 하겠다는 의향($\beta=.49, p<.001$), 출산의지($\beta=.27, p<.001$)로 나타났으며 이들 예측인자들은 결혼관을 43.6% 설명하였다. 즉 결혼하겠다는 의향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수록 결혼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Marriage Value

Variable	B	SE	β	t(p)
Constants	2.49	.14		17.51(<.001)
Gender(Male)	.12	.07	.11	1.78(.077)
Religion(Have)	.05	.05	.07	1.14(.257)
Economic Standard(Upper)	.70	.06	.07	1.16(.246)
Economic Standard(Lower)	-.01	.07	-.01	-.17(.867)
Marriage Intention (Don't Want to)	-.30	.07	-.33	-4.58(<.001)
Marriage Intention(Want to)	.37	.06	.49	5.84(<.001)
Family Strengths	.05	.03	.10	1.55(.124)
Intention of Childbirth	.14	.04	.27	3.85(<.001)
Adj $R^2=.436, F=18.321, p<.001$				

* Dummy variable
 •Gender (Male=1, Female=0)
 •Religion (Have=1, Not have=0)
 •Economic Standard (Upper=1.0, Middle=0.0, Lower=0.1)
 •Marriage Intention (Don't want to marry=1.0, SO-SO=0.0, Want to marry=0.1)

4. 논의

대상자의 출산의지는 평균 2.27점(5점 만점), 가족건강성은 평균 3.67점(5점 만점), 결혼관은 평균 2.99점(5점 만점)으로 출산의지는 중간 이하의 점수를 나타냈고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은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15]에서 나타난 가족건강성 3.20점, 출산의지 2.60점, 결혼관 2.14점에 비해 가족건강성과 결혼관은 더 높았으나 출산의지는 더 낮은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측정도구가 선행연구와 동일하지는 않았으나 출산의지가 선행연구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아쉬운 결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9]에서 결혼관이 3.11점,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에서 3.04점이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결혼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의 증가, 소득, 고용, 주거의 불안정[8,24]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출산의지는 성별, 종교 유무, 경제수준, 출생순위, 결혼의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출산의지는 남학생의 출산의지가 2.81점으로 여학생의 2.2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던 선행연구[15]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에서도 남성의 자녀관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자녀출산이 심신의 스트레스와 자아실현의 방해 요인으로 인식되어 출산의지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21] 생각된다. 종교 유무에 따른 출산의지는 종교가 있는 집단의 출산의지가 2.46점으로 종교가 없는 집단의 2.1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에 따라 출산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15]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였다. 경제상태에 따른 출산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경제수준이 '중'인 집단의 출산의지가 2.36점으로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의 1.9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15]에서는 경제수준에 따른 출산의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의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의향에 따른 출산의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결혼하고 싶다' 와 '그저그렇다' 라고 응답한 집단의 출산의지가 각각 2.60점, 2.21점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응

답한 집단의 1.61점보다 높았다. 이는 '반드시 결혼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집단의 출산의지가 가장 높았던 선행연구[15]와 유사한 결과였다. 긍정적인 결혼관을 지닌 집단의 출산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결혼관 형성에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가족건강성은 성별, 종교 유무, 경제수준,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의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남학생의 가족건강성이 4.05점으로 여학생의 3.6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에서도 남성의 가족건강성이 3.64점으로, 여성의 3.47점보다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종교 유무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종교가 있는 집단이 3.82점으로 종교가 없는 집단의 3.57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선행연구[15]에서는 종교가 없거나 기독교, 불교를 믿는 집단이 천주교를 믿는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경제수준이 '상'과 '중'인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각각 3.98점, 3.74점으로 '하'인 집단의 3.07점보다 높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4]에서도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적어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에 비해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가족건강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부모가 함께 사는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3.74점으로 별거, 이혼, 사별한 집단의 3.3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15] 연구에서는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결혼의향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결혼하고 싶다' 라고 응답한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3.80점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응답한 집단의 3.34점보다 높았다. 선행연구[15]에서도 '반드시 결혼하겠다' 라고 응답한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의 결혼생활이 원만할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결혼의향을 갖게 되고 부모님의 원만한 결혼생활이 가족 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돈독하게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결혼관은 성별, 종교 유무, 경제수준, 결혼의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혼관

은 남학생이 3.31점으로 여학생의 2.9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 결과에서도 남학생의 결혼관이 3.99점으로 여학생의 3.6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 결과에서도 남성의 결혼관이 2.90점으로 여성의 2.69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의 결혼제도가 남성에게 비해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21]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종교 유무에 따른 결혼관은 종교가 있는 집단의 결혼관이 3.09점으로 종교가 없는 집단의 2.9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에서 종교가 있는 집단의 결혼관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15]에서는 종교에 따른 결혼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수준에 따른 결혼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결혼관이 3.08점으로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의 2.8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결혼관이 3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결혼관에 비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12]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생활에서 경제적인 면이 매우 중요하며, 이 요소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게 될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의 결혼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결혼율과 출산율의 긍정적인 변화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12]. 결혼의향에 따른 결혼관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분석 결과 '결혼하고 싶다' 라고 응답한 집단의 결혼관이 3.17점으로 '그저그렇다' 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응답한 집단의 3.03점, 2.6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15]에서도 '반드시 결혼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집단의 결혼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상자의 출산의지와 가족건강성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5]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가족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가족 간에 유대감을 나누며 화목한 가정생활이 가능해지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의 경우 자신도 부모와 같이 자녀를 출산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가족건강성과 결혼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자신의 가족을 얼마나 건강하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결혼관과 가족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3]. 그러나 선행연구[13]에서는 가족건강성과 결혼관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가족건강성이 높은 학생은 가족건강성이 낮은 학생에 비해 자신도 결혼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높아 결혼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모의 결혼생활이 행복해 보일 때 자녀의 입장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13,25]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출산의지와 결혼관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들[15]과 일반 대학생들[26]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의향과 출산의지였으며, 이 두 가지 변인이 결혼관을 43.6% 설명하였다. 즉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수록 결혼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가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부모님의 결혼생활이 원만하고 안정적인 때 자녀의 결혼에 대한 기대나 결혼의향이 증가하게 된다[6]. 즉, 부모의 결혼생활이 행복할수록 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입장에서 결혼에 대한 기대나 결혼의향이 높아져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출산의지가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혼관이 출산의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20,27]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가족건강성은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결혼관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6]를 고려할 때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였다. 한·몽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8]에서는 가족기능 하위요인 중 가족응집성이 한·몽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추후 반복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여성의 사회적 경력을 중단시키는 장애물이 아닌 행

복한 가정을 이루는 요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효과적인 사회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결혼의향과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대학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좀 더 긍정적인 결혼관을 재학기간 동안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결혼관 정립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결혼의향과 출산의지가 높을수록 결혼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 전문대학 간호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학 이외에 타 전공학생들을 포함하여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1] KOSIS, Total fertility rate. <https://kosis.kr/index/index.do>
- [2] Y. J. Choi, S. B. Choi, M. J. Lee, "The generational transformation in family-related identities and its implication", *Family and Culture*, Vol.23, No.2, pp.1-40, 2011. DOI: <https://doi.org/10.21478/family.23.2.201106.001>
- [3] J. E. Lee,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Interaction and Attachment and Autonomy to Parent on Image of Marriage of Adolesc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996.
- [4] J. Y. Hong, S. Y. Lee.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ego-resilience, sexual awareness toward marria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 pp.1283-1297,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1283>
- [5] J. Y. Kim, H. S. Jo, "The effect of dating relationship, marriage perspectives, and marriage images on college students expected age of marriag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9, No.2, pp.123-143, 2014.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1283>
- [6] A. R. Won, J. Y. Park, "Impact of family strengths,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 and views on marriage on unmarried couples' marriage intention",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24, No.1, pp.145-166, 2016. DOI: <https://doi.org/10.21479/kaft.2016.24.1.145>
- [7] C. S. Park, S. G. Yeoum,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actualization,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marriage value in un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3, pp.1633-1651, 2015.
- [8] Y. J. Choi, J. S. An, "Marriage intentions and family strength according to the value of marriage and children type of unmarried male and femal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25, No.2, pp.143-159, 2020. DOI: <http://doi.org/10.21321/jfr.25.2.143>
- [9] H. S. Kim,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family values on their marriage valu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8, No.6, pp.217-229, 2017. DOI: <http://dx.doi.org/10.22143/HSS21.8.6.15>
- [10] S. K. Kim, "The cause of low fertility and the fertility stabilization measures", *Health and Welfare Policy Journal*, Vol.86, pp.6-21, 2003.
- [11] E. J. Park, H. M. Chun, "The effect of vocational consciousness on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6, No.2, pp.87-105, 2011.
- [12] E. Y. Lee, H. R. Yoon, H. Y. Shin, C. H. Min, S. J. Son, J. H. Yang, H. J. Yoon, H. J. Nam, "Influence of the self-differentiation and feminist identity in perceptions of marriage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0, p.433-443,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0.037>
- [13] S. Y. Auh, J. E. Kim, "Research on the evasion & willingness to marriage formation among the students in the national colleges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26, No.3, pp.149-163, 2013.
- [14] K. H. Shon, N. H. Kim, E. S. Lee, "The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 pp.719-728,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072>
- [15] S. Y. Jeon, J. Y. Park, Y. H. Kim, "A study of family healthy difference according to married employees' work-family conflict",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12, No.3, pp.59-79, 2008.
- [16] Y. S. Jang, *The Influence of Family Strengths on Self-esteem and Marriage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p.2,6,14, 2017.
- [17] Y. J. Yo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9, No.2, pp.119-151, 2004.

- [18] Y. J. Yoo, I. S. Lee, S. K. Kim, H. J. Choi, "Development of Korea family strengths Scale(KFSS-II)",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1 No.4, pp.113~129, 2013.
DOI: <http://dx.doi.org/10.7466/JKHMA.2013.31.4.113>
- [19] J. A. Min, *Childbirth Decisions in Relation to Awareness on the Marriage and Career among Korean College Women*, Master's thesis, Dongkuk University, Seoul, Korea, 2015.
- [20] N. R. Han, H. J. Moon,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identity and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on their perceptions of marriag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Vol.24, No.2, pp.205~218, 2015.
DOI: <https://doi.org/10.5934/kihe.2015.24.2.205>
- [21] E. S. Jeong, *Impact of Views on Marriage and Tendency to Delay Marriage on Childbearing Intention of Single Company Employee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5.
- [22] J. K. Park, *A Study on View on Marriage and Perception on Parenthood amo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Gyeonggi, Korea, pp.36, 2018.
- [23] Y. K. Jeong, K. H. Kim, J. A. Bae, C. A. Kim, "Study on perspective of marriage among Korean adul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Research Essay*, Vol.32, pp.49-92, 1997.
- [24] S. S. Lee, I. C. Sin, N. H. Cho, H. K. Kim, Y. S. Jeong, E. Y. Choi, J. S. Kim, "Cause of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30, No.2, 2005.
- [25] H. J. Kim, D. W. Lee, M. R. Kim, "Differences in the expectation of employment and marriage based on their sex role models: comparing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Vol.66, No1-3, pp.191-212, 1995.
- [26] S. Y. Lee, D. A. G. Hong, "The study on the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9, No.2, pp.3-28, 2014.
- [27] S. H. Park, E. K. Byun,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of childbirth",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 pp.103-111, 2020.
DOI: <http://doi.org/10.5762/KAIS.2020.21.1.103>
- [28] O. Adiyajantsan,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of Family of Origin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Marriage Perspectives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Korea, pp.55~56, 2015.

이 인 숙(Inn-Sook Lee)

[정회원]



- 1994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과 (보건학석사)
- 200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학, 보건교육, 학교보건